

- 주요 뉴스: 6월 FOMC 의록, 7월 금리인하 부정적 의견이 다수. 트럼프는 8개국에 관세 통보
 - LSEG, 미국 2/4분기 기업 이익 증가율 둔화 예상. 관세 영향 노출 업종이 취약
 - EU,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무역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
 - 중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2년래 최저.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6월 FOMC 의사록, 긍정적 관세 협상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6%], 달러화 약보합[-0.01%],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말 금리인하 전망, Nvidia 등의 기술주 강세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對美 무역 갈등 우려 완화 등으로 0.8%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EU와의 순조로운 무역협상, 국채금리 하락 등이 배경
유로화 가치는 약보합, 엔화 가치는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90억달러 규모 입찰에서의 양호한 수요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71.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4.2원, 0.06% 하락). 한국 CDS 약보합

		7/9일	7/8일	전일대비			7/9일	7/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63.3	6,225.5	+0.61%	국채 금리 10y	미국	4.33%	4.40%	-7bp
	유럽	549.96	545.71	+0.78%		독일	2.67%	2.69%	-1bp
	중국	3,493.1	3,497.5	-0.13%		영국	4.61%	4.63%	-2bp
	일본	39,821	39,689	+0.33%		한국	25bp	25bp	-0bp
	한국	3,133.7	3,115.0	+0.60%	CDS 5y	중국	47bp	47bp	-0bp
	달러지수	97.51	97.52	-0.01%		EMBI+	-	360	-
환율	유로화	1.1720	1.1725	-0.04%	위험 지표	VIX	15.94	16.81	-5.18%
	엔화	146.33	146.58	+0.17%		WTI유	68.38	68.33	+0.07%
	위안화	7.1807	7.1785	-0.03%	원자재	구리	544.4	564.5	-3.57%
	원화	1,375.0	1,367.9	-0.52%		금	3,313.7	3,301.9	+0.3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6월 FOMC 의사록, 7월 금리인하 부정적 의견이 다수. 트럼프는 8개국에 관세 통보

- 6월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두고 상반된 견해 제시. 일부 위원은 관세가 일회성의 물가 상승을 야기할 뿐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언급한 반면, 다수의 위원들은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 이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
- 아울러 19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은 연내 최소 2회의 금리인하를, 2명은 1회 인하, 나머지 7명은 금리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 특히 7월 금리인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위원은 매우 소수에 불과. 반면, 상당수의 위원은 관세 영향이 일시적일 경우 연말에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 피력
- 시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등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연준이 당분간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7월 금리인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 특히 다음 주 발표 예정인 6월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 연준의 금리동결 근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LPL Financial)
-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50%), 필리핀(20%), 브루나이·몰도바(25%), 스리랑카·알제리·이라크·리비아(30%) 등 8개국에 관세 부과 통보 서한을 발송하고, 해당 조치는 8/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 금일 각국에 발송된 서한들은 관세율과 국가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일 발송된 서한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 EU 및 인도에 대한 서한은 아직 발송되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를 적용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7.6%로 90년 만에 최고 수준(Yale Budget Lab). 민주당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비난이 제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LSEG, 미국 2/4분기 기업 이익 증가율 둔화 예상. 관세 영향 노출 업종이 취약

- 금융정보제공업체 LSEG에 따르면, S&P500기업의 2/4분기 연간 이익 증가율은 전기비 둔화(13.7%→5.8%) 예상. 업종별로 기술주, 통신서비스 등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나 자동차운송·내구재 등 관세 노출 영향이 큰 업종은 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추정. 본격적인 실적발표는 15일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시작

■ 미국 차기 연준 의장 후보,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급부상. 정치적 충성도 반영

-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케빈 해시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중에서 선택을 고려하는 가운데, 해시 위원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 트럼프는 차기 의장에 금리인하를 명시적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연준 독립성보다는 정치적 충성도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

■ EU,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순조롭게 진행. 무역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

- EU의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만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 특히 EU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과의 무역합의 도출을 통한 무역문제 해결이라고 강조. 다만 일부 항목은 EU 법률과 제도적 원칙 등을 이유로 협상이 어렵다고 지적

■ ECB 주요 인사, 연내 추가 금리인하는 부적절. 일부에서는 신중한 결정 강조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 홀츠만 위원은 현행 금리가 경기를 자극하는 영역에 위치하여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발언. 독일 중앙은행 총재 나겔 위원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약속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데이터에 의존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

■ 중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2년래 최저.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3.6% 떨어져 전월(-3.3%) 대비 하락폭 확대되며 예상치(-3.2%) 하회.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1% 올라 5개월 만에 상승 전환. 다만 상승폭은 매우 제한적. 저조한 주요 물가지수는 무역전쟁과 부동산 위기로 인한 내수 부진 지속 등에 기인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 주도 성장모델로 전환하면서도 향후 5년간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 이러한 투자와 소비의 상호 보완을 통해 내수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0 현지시각 기준)

- 연준 월러 이사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 발언
- 미국 7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독일 6월 소비자물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감세법안으로 통제 불능 수준까지 심화될 우려 - 블룸버그

(Congress keeps on digging its deep fiscal hole)

- 최근 감세법안의 통과로 향후 10년간 5조 달러 이상의 추가 재정적자가 예상. 해당 법안은 세금 및 지출 조정을 일시적인 것으로 포장해 실제 재정 부담을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으로 추정. 아울러 관세 인상, 경제성장 촉진, 비효율 제거만으로는 재정 문제 해결이 역부족
- 단순한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의회는 초당적인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 상황에 대한 정직한 진단과 함께 개혁안을 제시할 필요. 조세 및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범위하되 온건한 수준의 세금 인상과 소폭의 예산 삭감도 요구

■ 글로벌 증시, 3/4분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투자자 우려 자극 - 블룸버그

(Summer Selloff Fears Are a Nagging Concern for Investors)

- Goldman Sachs와 BofA 등 투자은행들이 S&P500지수 전망을 상향하는 등 증시에 낙관론 확산. 하지만, 일부에서는 역사적으로 3/4분기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금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Deutsche Bank)
- 현재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상호관세 부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 약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및 대규모 부채 위기의 현실화 등이 거론. 그러나 기관의 주식 보유 규모가 '23년 이후 최저 수준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도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차기 연준 의장, 트럼프가 기대하는 금리인하가 여의치 않을 소지 - 블룸버그

(Powell's Successor May Struggle to Deliver the Rate Cuts Trump Wants)

- 큰 폭의 금리인하를 원하는 트럼프의 조기 연준 의장 지명 의지 표명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26년 5월(파월 임기 만료) 직후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 포지션 구축. 하지만, 금리 결정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과반수 지지가 필요
- 이에, 차기 의장은 금리인하 정당화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여타 위원의 지지 확보 과정이 요구. 아울러 최근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전망은 2.75~4.25%로 예상 범위가 확장되고 의견도 세분화. 이에 의장이 위원회에서 커다란 정책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 유도는 쉽지 않을 것이며, 연준의 독립성 약화 가능성도 존재

■ **유로화 강세, 유럽 경제에는 양날의 검 - Financial Times**

(The double-edged sword of a strong euro)

- 연초 이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13% 상승. 이는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 방침에 따른 유로존 경제 회복 기대도 반영되었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 달러화 약세와 그로 인한 유로화 수요 증가. 이러한 현상은 역내 인플레이션 안정에 도움. 또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쳐 ECB의 연내 금리인하 전망이 점차 후퇴
- 하지만 유로화 강세는 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저해를 초래. 일례로 금년 역내 기업의 주당순이익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9%→2%, Barclays). 유로화 강세가 양호한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둔다면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환시장의 역학관계 변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

■ **미국 부채한도 상향,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 - Financial Times**

(The debt limit is still a thing)

■ **미국 트럼프 감세법안을 통한 기업 혜택, 업종 및 사업별 차별화 예상 - Financial Times**

(What Donald Trump's 'big, beautiful bill' means for corporate America)

■ **미국 트럼프 관세, 관련 여파로 장기간 경제 성장 둔화 유도할 소지 - The Economist**

(America cannot dodge the consequences of rising tariffs forever)

■ **브릭스(BRICS) 영향력, 회원국의 비대화 일관성 부족 등으로 감소될 전망 - Financial Times**

(The Brics lose their cl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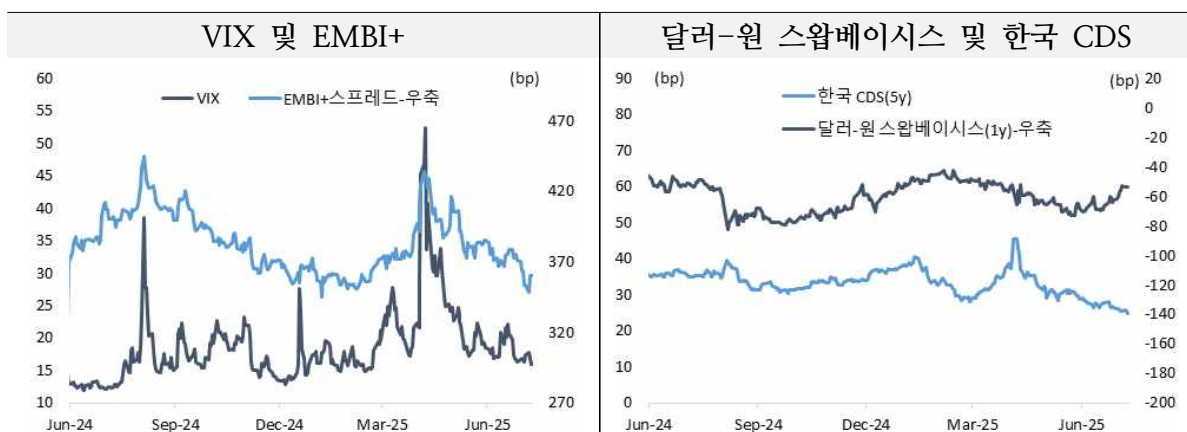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